■ 올해산 마늘 첫 수매현장 / 23일 대정농협 유통센터의 하루

# 낮은 수매가… 얼굴엔 아쉬움 가득

농민들 "일당 올랐는데
마늘 수매가는 제자리"
농협 유통대책에 쓴소리

"제주산 마늘 독자판로
수매가 부터 차별화해야"

올해산 마늘 수매가 시작된 23일 대정농협 유통센터에는 오후들어 마늘을 싣고 온 차량들이 몰려들었다. 강희만기자

올해산 마늘 수매가 시작된 23일 오전 10시쯤 대정농협 유통센터는 수확한 마늘을 싣고 들어오는 차량보다 차량에 적재된 마늘을 대형트럭에 옮겨싣기 위해 기다리는 일손이 더 많았다. 당초 계획상 첫 수매는 22일이었지만 지난 17일부터 사흘간의 비날씨로 인해 하루 늦춰졌다. 22일 오후 일부 수매가 이뤄졌지만 수확이 늦어지면서 이날 오전 유통센터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마늘을 실은 차량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한쪽 바퀴가 내려앉을 정도로 가득 실은 1t 트럭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였다. 농가들의 얼굴에는 수확에 따른 기쁨과 적정 수매가를 받지 못하는 아쉬운 표정이 교차했다.

전국적으로 마늘 재배면적은 2만8000ha로 전년대비 17% 증가했고 생산예상량은 최대 36만t 이상으로 평년대비 6만t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황까지 좋은 상황이어서 1년 동안 힘들게 농사를 지은 마늘에 대한 수매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마늘 재배농가인 박태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부의장은 "당장 인건비가 지난해 일당 7만5000원에서 올해는 8만원으로 올랐지만 마늘 수매가는 kg당 3000원으로 제자리걸음했다"면서 "육지부 가격이 낮았기 때문이라는데 언제까지 다른 지역 상황에 휘둘릴게 아니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제주마늘의 독자판로를 확보해 수매가격 결정부터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0년째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문성두(61·일과리)씨는 "4월 한달정도 가뭄이 지속돼 수확량 감소가 예상됐지만 다행히도 작황은 좋은 편이다. 그런데 마늘 농사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마늘농사는 하늘에 운명을 맡겨야 되며, 사람의 능력은 20~30%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농사의 어려움은 그렇다치더라도 효과적이지 못한 유통대책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문씨는 유통대책의 일환으로 "최남단 제주의 마늘이 북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건의했다. 아울러 도의원에게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

올해 대정지역 마늘은 지난해 보다 구의 크기가 좋고 단수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작황만큼 마늘 수매단가도 높았으면 좋겠지만 현재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계약재배 외 물량의 경우 포전거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정농협은 계약재배물량 110%외에 130%까지 추가수매를 통해 계약재배 농가들의 시름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농협관계자는 강조했다.

김정훈 대정농협 유통센터장(상무)은 "남도만이 아니라 육지에서 생산되는 대서종도 풍년이라 예년 대비 풍작이 예상돼 매우 어려운 상태에 봉착했다"며 "수매단가는 농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심의결정부분에선 여러가지 작황상태나 농가 기대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12일까지 예정된 올해산 마늘의 수매현장은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마늘을 하차한 적재함에 농민들의 아쉬움으로 다시 가득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상윤기자

## 道, 지역주택조합 모집 점검 돌입

### 사업 장기화·추가부담금 피해 등 사전 예방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에 대한 통일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 및 점검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1일 수립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점검을 통한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다.

제주도는 이번 수립한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조합원 모집신고 전 '사전 도시계획심의'를 득하도록 함으로써 모집신고 이후 발생될지 모를 사업장기화와 추가부담금 등의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된 3개 조합과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중인 6개 조합 등 모두 9개 조합을 대상으로 '주택법' 위반여부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대책 준수여부 등 사업장 점검을 실시해 투명한 조합운영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계약서에 탈퇴절차 포함여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는 점검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며 점검에서 발생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고대로기자

## 하우스 감귤 수출 시작

### 지난 22일부터 주당 1회

제주감귤농협은 올해산 하우스 감귤을 첫 수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협 측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감귤농협 무역사업소가 올해산 하우스 감귤 200상자 분량 600kg을 괌으로 수출했다. 농가 수취가는 kg당 6500원으로 책정됐다.

1주일에 1번꼴로 괌을 포함해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도 수출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24일 금요일 음 4월 20일 (12물)

기상정보

### 맑음

제주도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0℃, 낮 최고기온은 24~28℃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0~1.5m로 일겠다.

| 오 전 | 강 수 확 률 | 오 후 |
|---|---|---|
| 0% | 제 주 | 0% |
| 0% | 성 산 | 0% |
| 0% | 고 산 | 0% |
| 0% | 서귀포 | 0% |

| | | |
|---|---|---|
| | 해뜸 05:29 해짐 19:33 | 달짐 09:55 |
| 물때 | 만조 02:20 13:40 | 간조 09:01 20:18 |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 | | |
|---|---|---|
| 내일 | 구름 조금 | 20/27℃ |
| 모레 | 구름 많음 | 19/26℃ |

생활·안전 기상정보

| 식중독지수 | 자외선지수 |
|---|---|
| 관심 | 매우높음 |

## 전통시장 갑시다!!

| 전통시장명 | 장 서는 날 |
|---|---|
| 제주시민속오일장 | 2, 7 |
| 한림민속오일장 | 4, 9 |
| 세화민속오일장 | 5, 10 |
| 함덕오일장 | 1, 6 |
| 고성오일장 | 4, 9 |

| 전통시장명 | 장 서는 날 |
|---|---|
| 서귀포향토오일장 | 4, 9 |
| 성산오일장 | 1, 6 |
| 중문향토오일장 | 3, 8 |
| 표선오일장 | 2, 7 |
| 대정오일장 | 1, 6 |

## "올 여름 평년보다 덥고 태풍은 1~3개"

### 기상청 3개월 날씨 전망
### 7월에는 강수량 많을 듯

올해 제주의 여름은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높아 무더운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또 태풍은 1~3개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이 23일 발표한 '제주도 3개월(6~8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기온 변동성이 크겠다. 6월과 8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7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겠다. 태풍은 평년 수준인 1~3개 정도가 영향을 주겠다.

월별로 보면 6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21.3~21.9℃)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다. 강수량은 평년(162.9~273.1㎜)과 비슷하겠다.

7월은 저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많은 비가 내리겠고, 후반에는 주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평년(25.2~26.2℃)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191.1~320.6㎜)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8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대기불안정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26.6~27.4℃)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209.7~308.8㎜)과 비슷하겠다.

이 밖에도 기상청은 북서태평양에서 11~13개(평년 11.2개)의 태풍이 발생해 1~3개(평년 2.2개)가 제주를 비롯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